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3호

2025년 11월 2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독서 : 욥기 19,1.23-27ㄴ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이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 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이시다.	
▶ 2독서 : 로마서 5,5-11	▶ 복음 : 마태오 5,1-12ㄴ

① 11월 16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1월 16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⑤ 사제연수 관계로 11월 18일~21일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⑥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1월 16일~22일)

⑦ 매월 넷째 주 11월 23일(일) '한끼 나눔'

⑧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 11월 2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 11월 9일: 선교하는 교회

시간: 오전 9:00,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11월 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사목회 모임

일시: 11월 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③ 다락방 모임

일시: 11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④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11월 9일(일) 오후 5시
문의: 황성자 마리아 220-0822

⑤ 쏘렉 구역 모임

일시: 11월 11일(화) 오후 5:30
장소: 새신자 교리실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 '기도' 에 대한 특강 안내

일시: 11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집전: 김다울 클레멘스 신부님 (시애틀 성 김대건 성당 주임)

신청: 각 미사예물 접수처

- 점심식사 인원 파악 관계로 꼭 신청 등록 부탁드립니다.

※ 한글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글날 기념 한마당 글잔치 한글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성당 한글학교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장원 박서연 /초등부 1등 이지윤, 2등 이서윤 / 중등부 2등 이승윤



헌금

11월 8/9일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USA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0월 25/26일 : \$8,795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08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433	\$1,940	\$1,292	\$2,130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미사: 보편교회에서 중요시하는 미사의 요소 - 능동적 참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14항에서는 “전례 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례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4항에 따르면,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는 결코 남의 예식에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전례헌장 14항).” 전례헌장 14항과 연결되어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은 전례헌장 26항입니다. 전례헌장 26항에서 <미사는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편교회는 미사가 사제 중심이 아닌 하느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례헌장 14항과 26항의 공통적인 강조사항은 하느님 백성인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초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알아둡시다

물론 우리는 이미 능동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합당한 우리의 내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신학적으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부분을 요구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 전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미사에 집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미사 시간에 미리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를 준비하는 자세. 미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지금 거행하고 있는 미사의 예식에 집중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가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곧 능동적인 참여는 지금 거행되는 예식에 집중하고, 오늘 미사를 위해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미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거룩한 시간을 바라봄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이 거룩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태도가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 위령의 날 강론 요약본

죽은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은 단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희망의 시작입니다.

옴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심을 나는 압니다.”(옴 19,25)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또한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마태 5,4)라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눈물 속에서 자라남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 하늘의 성인들, 정화 중인 영혼들, 그리고 지상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미사 봉헌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특히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현재화하는 가장 완전한 기도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위령의 날은 또한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회개의 날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산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로 우리 죽은 형제자매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그들이 평화 안에서 잠들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희망과 사랑의 통공을 새롭게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